

GLORY of 노대원

NEWS FOCUS

이달의 인물 Pick! 졸업소감 김한기 원우 편
수상자 특집 총장상 최상 원우, 논문상 박태우 원우
신설 코너 노대원 칼럼 - 김태오 학생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대원 원우님들을 응원합니다.” 제 30대 학생회 출범식 2/26(토)



CONTENTS

노대원 사람을 만나다

이달의 인물 PICK!

노사관계학과 49기 김한기 원우

NEW

노대원 칼럼

노동법이론실무학회를 다녀와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생각
[기고] 학생회장 김태오

※ 누구나 참여가능

학생회 주요 활동

- 주요 활동 / 기증 내역
- 54기 신입생 OT
- 신입생 환영사
- 제30대 학생회 출범식

졸업 특집 | 수상자 소감

총장상 노동경제학과 48기 최상 원우
논문상 노동법학과 49기 박태우 원우

좋은 책 & 글

[책]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
... 기시미 이치로 지음 / RHK

학사일정 & 유용한 팁

[앱] initial 모바일 학생증 등록

학생회 주요 공지

- 53기 New Start-OT (3/12,토)
- 노대원 등산 (4/30,토)
- 미니학회 (5월) ※ 일정 추후 공지
- 소식지 표지 공모 안내

노사관계학과 49기 김한기 원우 졸업소감

인터뷰어's 코멘트

지난 2/26(토) 졸업식에 졸업하는 김한기 원우님을 만났습니다. 김한기 원우는 누구보다 **학교활동에 열정적이었고 인간적인 면이 좋아** 제30대 학생회가 졸업식 때 인터뷰를 요청 드렸습니다. 아울러 49기 선배님들이 원우들에 대한 사랑으로 증정해주신 일리 커피머신 너무 감사 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쏘살같이 지나간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과 복잡잡한 마음을 '엣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이네.'라고, 저에게 있어서도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그러합니다. 2019년 9월 노동대학원 입학이 엣그제 같은데 2022년 2월이고 벌써 졸업입니다. 졸업을 하며 노대원에서 보낸 지난 5학기를 되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노대원에서 함께한 수많은 추억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부족하지만 짧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뒷면에 계속)



제 30대 학생회가 Pick한 이달의 인물! | 노사관계학과 49기 김한기 원우

아마도 노대원에 재학중인 원우들과 비슷하게 나도 대학원 입학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하는 제대로 된 첫번째 공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10여년간 업무를 하며 매너리즘에 빠진 나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고 활력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 선택의 후회는 없고 참 잘한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대원에서 보낸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수업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업무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부리나케 옮겨 학교에 오고, 수업을 듣고, 과제를 작성하고, 발제를 하며, 토론을 하는 일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노동관련 학문적 지식만이 아닌 여러모로 많이 성숙하고 발전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울러 노대원을 거쳐간 수많은 원우들이 한결같이 가장 좋았다고 얘기하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쉽지 않지만, 교수님 또는 원우들과 3교시에 술 한잔 기울이며 나눈 행복한 시간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렇듯 나에게 노대원은 노동관련 지식만 쌓는 공간이 아닌 **말 그대로 사람냄새 나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나를 한단계 발전시킨 자양분**이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면 노대원에서 보낸 일상들이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수강신청 할 지, 과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제는 언제 할지 등, 지나놓고 보니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 훌가분하면서도 그리울 것 같습니다. 지난 5학기동안 함께 했던 동기들, 선/후배님들, 박지순 원장님 이하 교수님들과 행정실 직원분들 모두가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대원에 재학중인 원우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대면수업이 당연한 일상이 되고, 3교시의 행복이 다시 찾아오기를 바라며, **사람냄새 나는 노대원에서 좋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노동경제학과 48기 최상 원우

GS에너지 인사팀

학생회장님께서 총장상 받으시니 그에 대한 소감을 전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상 받는 이유가 학점이니 그에 대한 작은 노하우라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점 잘 받는 5가지 방법

1. 학교생활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교수님이나 원우들과의 네트워킹도 있을 수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지식을 얻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학점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학교생활과 수업의 질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법입니다. 저는 전학기 A+를 목표로 세우고 학교생활을 보냈습니다. A+를 받으면 장학금 받을 기회가 있으니 더 동기부여 됩니다.

2. 출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출석 점수를 학점의 기본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입니다. 결석 3회 이상이면 이유불문하고 A이상 주지 않는 분들도 있고, 100점을 기준으로 지각이나 결석시마다 일정 점수를 차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야간 대학원생임을 고려하여 결석 3회 / 4~6 / 7회 이상 등으로 나누어 점수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컨대 좋은 학점의 기본은 출석입니다. 정량적인 출석점수 외에도 매 수업을 집중하여 듣다 보면 교수님의 스타일과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과 결과를 원하는지 또 원한다고 그 것들이 학점과 모두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선택과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뒷면에 계속)

3. 기간내 제출

출석만큼 제출기간도 점수를 감점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시대처럼 디지털 플랫폼에 과제를 제출하게 되면 교수님도 아량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4. 나만의 라이브러리 작성

교수님의 강의 자료와 다른 원우들의 발표자료의 축적은 물론이고 해당 주요 내용과 내가 느낀 인사이트를 기록해 둡니다. 다른 과목에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내 인사이트를 적용하면 적은 노력으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되는 법입니다. 아이디어는 사용하지 않는 한 가치가 없습니다. 서로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생각을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상아탑의 의의가 아닐까요. 구매 받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도용도 구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까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논문을 쓰시면 됩니다.

5. 원우들과의 네트워크

어떤 과목들은 팀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팀내 서로의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서로 합이 잘 맞는 팀이 좋은 평가를 받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학점은 정말 부수적입니다. **노대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한 학기 한 학기 지날수록 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능력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교수님이 언급하는 논문 하나하나 다 읽고 이해하고 토론하시는 원우님. 정부정책의 배경과 나아갈 방향을 빠삭하게 아시는 원우님. 인사전반의 흐름과 각종 케이스에 대한 경험을 잘 아시는 원우님. 오랜 노동조합 경험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움직임의 동기를 잘 이해하고 설명해주시는 원우님. 특정 지역을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원우님. 두 다리 정도 건너면 연결 못 시킬 곳이 없는 원우님 등 한 분 한 분이 능력자이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학생회와 함께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시고 고대의 끈끈함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학과 49기

박태우 원우

한겨레 신문 기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대학원에 왔을까.”

논문을 한창 쓰던 시절 입에 달고 살던 말입니다. 졸업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논문 한권은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가 먼지만 쌓일 결혼앨범처럼 될 운명이겠지만 책장에 꽂힌 논문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는 학부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고, 노동법 공부를 대학원 입학하고 처음 해본지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다만, 글을 써서 월급을 받는 기자로 일하고 있어서, 좋은 논문을 써야겠다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부터 ‘플랫폼노동’으로 논문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수업 들을 때마다 나중에 논문 작성에 참고할 목적으로 발표주제도 비슷한 것을 골라 수행했습니다. 최신 학술지에 연구동향을 확인하고 짬짬이 연구주제에 관한 레퍼런스 아카이빙을 했습니다. 4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면서, 공부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후회도 많이 듭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박종희 지도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논문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플랫폼노동’, ‘근로자성 판단’이라는 소재만 있고, 연구주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할 때, 교수님께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해보면 어떨겠느냐”고 조언해 주셨고,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음식배달 기사를 중심으로-**”를 논문 주제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 작성부터 중간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기마다 적절한 조언을 해주셔서 논문이 갈피를 잡을 수 있었고, 무사히 논문을 마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하경효·박지순 교수님의 지적도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년 반 전 입학할 때, 박지순 원장님께서 “연구와 학문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통해, 2년 반 동안 노동대학원에 진 빛을 성실히 갚도록 하겠습니다. 원우님들과 노대원 가족들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논문작성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ehot@hani.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를 다녀와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생각

학생회장 노동법학과 51기 김태오

지난 2/10(목) 노동법의 최신 쟁점이라는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를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회는 학교 교실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셔서 원활하게 발제와 토론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법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대해 잘 다루어 주신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관심 있는 원우님들은 학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의 최신쟁점, 김희성,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고찰, 양주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 토론 권혁 외 2명)

부족하지만 해당주제에 대한 작은 소견을 간략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경영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판단으로 여러 판단들이 있었고, 최근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명칭만 성과급이고 임금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판단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과 성과급을 구분해서 그 인상분을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급 형태를 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명칭만 성과급으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사는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 성과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노조 사업장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성과급이라거나 공공기관처럼 정해진 경우가 있는 경우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실질을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엄연히 노동조합이 있고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해서 정한 임금, 성과급에 대한 합의마저도 일정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해 졌으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임금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 인가 의문입니다.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게 되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자들에게는 당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근로자 전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판단으로 회사는 위축될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급의무를 만드는 기준과 관련된 문구는 없애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성과급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뒷면에 계속)

노대원 칼럼 NEW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성과급 지급기준은 임의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되어야 근로자들이 예측가능성과 공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번 이러한 기준설정에 대해 노사가 대립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노사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조항에 집중하는 것이 불필요한 대립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단법 영역은 노사라는 주체가 있고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에 관한 대표권자의 권한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대부분 이를 뒤집거나 새롭게 결정된다면 헌법상 노동 3권과 노조법의 관련 규정을 통한 노사자치가 존중 받지 못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또한 노사 합의사항이 쉽게 뒤집히는 사항이라면 소송이 남발되는 상황 또한 우려됩니다.

이러한 성과급 대한 지급기준과 임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노사가 정하는 것을 두고 이를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하여 임금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법원의 판단 경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성과급과 임금이라는 대상을 별도로 정하고 그 기준을 각각 노사가 합의하여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임금성 판단으로 결정된다면 노사합의라는 것이 무색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급을 정함에 있어 최소 지급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를 정하는 것이 곧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곧바로 임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경영목표의 달성 등 최소한의 지급 조건이 성취될 때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과 임금처럼 곧바로 명확히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과거 2005년 회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에도 노동조합의 요구와 직원 사기부여 차원으로 “생계비 부족분”이라는 명목으로 300%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을 최소기준으로 성과급으로 주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판단 경향대로라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건대 적자 상황에서도 회사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 오히려 임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어떤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해 선제적, 호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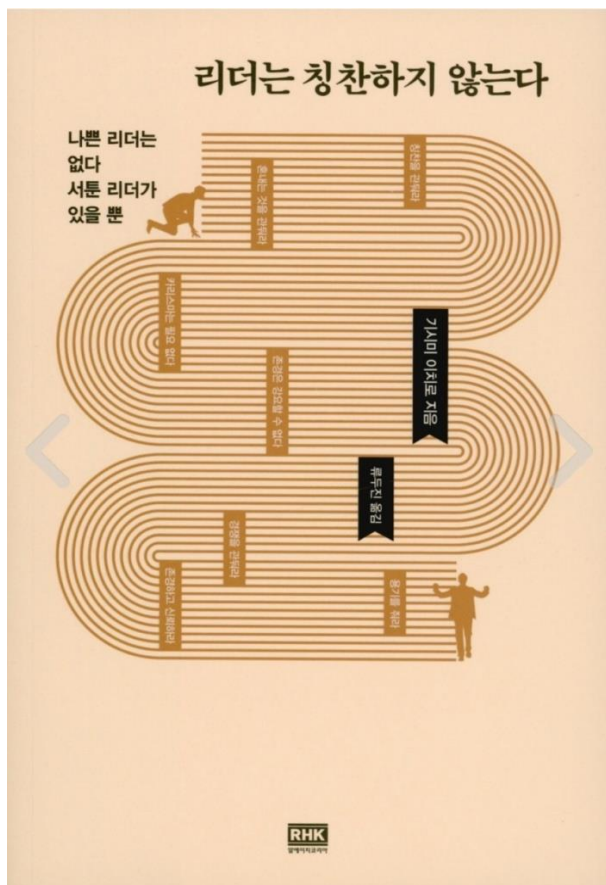
최근 하급심 판결들이 임금성을 인정하는 사례(현대해상, 삼성전자 등)가 있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집단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과거에 있었지만 (대법원 2005.10.13선고 2004다13755 판결) 향후 유노조 사업장에서 성과급에 대한 임금성 판단만큼은 노사합의에 대한 부분이 존중되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기고 가능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학생회장 김태오 올림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



아들러 심리학회 고문이자 카운슬러인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 받을 용기”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첫 리더십론으로 저술한 “리더는 칭찬하지 않는다”는 요즘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MZ세대가 바라는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현재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원우님들과 그리고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원우들이 모두 보시기에 좋은 책으로 생각되어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상냥함을 뜻하는 부드러울 우(優)는 사람인(人) 변에 근심 우(憂)자를 쓴다. **다른 사람의 슬픔, 괴로움, 외로움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냥함이다.**

-이케다 다이사쿠, [인생좌표]에서 -

“ 원우님들, 30대 학생회가 추천하는 이번 달의 도서! **함께 읽어요!** ”



학사일정 한눈에 보기

3월 · 4월

3/10(목)~14(월)	수강정정
3/14(월)~3/18(금)	학위청구 트랙신청
3/28(월)~4/1(금)	전기 종합시험 신청
4/14(목)	전기 종합시험
4/20(수)~4/26(화)	중간고사

고대원 30대 학생회와
함께 1학기 가즈아!



슬기로운
학교생활
꿀팁!

모바일 출입증 만들기

← initial



initial (이니셜)
SKTelecom

열기

3.0 ★
리뷰 392개

10만회 이상
다운로드

3
만 3세 이상



initial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로
다양한 증명서를 one-stop으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① 이니셜(initial) 앱설치
- ② 본인인증절차
- ③ 하단 발급가능 증명서
- ④ 대학 신분증
- ⑤ 고려대 선택 학번 입력
- ⑥ 약관 동의, 제출 완료
(상단에 학생증 됨)

노대원 제 30대 학생회

활동 소식

“30대 학생회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활동 내역

- 2/16(수) 54기 신입생 OT(온라인 행사지원)
- 2/17(목) 54기 입학식 지원
- 2/26(토) 전기 학위수여식 지원
- 2/26(토) 학생회 출범식

활동 계획

- 3/12(토) 53기 New Start-OT
- 4/30(토) 학과별 등산대회 예정
- 저녁 간식 제공 개시
- 일리 머신 휴게실 개시 (캡슐구비)

기증 내역

- 일리 커피 머신 (49기 졸업생 일동)
- 스벅 다이어리 신입생 등 행사 참여자 제공 (노동법학51기 이동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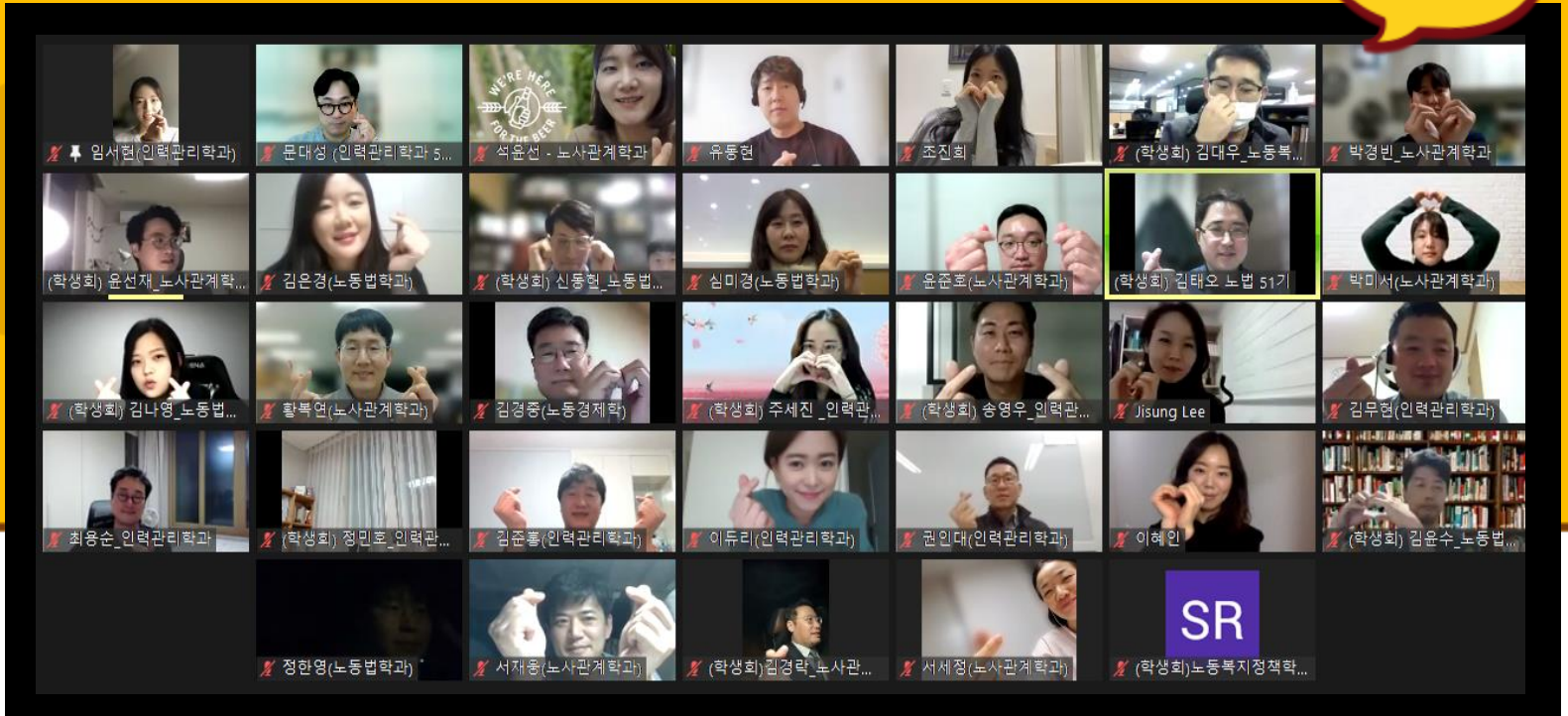
원우님들의 응원이 힘이 됩니다

※ [미니학회] “공정에 대한 노대원 원우들의 생각”을 주제로 학회 검토 중입니다. 관심 있는 원우분들께서는 “**공정하다는 착각**” 도서(마이클 샌델 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월 예정 일정/계획 추후공지)



53기 신입생 AT

WOW!!



너무 어려운 퀴즈(MZ세대 퀴즈포함)에서 고득점하신 열 분의 신입 원우님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소개를 메모를 띄우고 진행하였습니다.

1	윤준호(노사관계학과)	6,453점
2	박경빈(노사관계학과)	6,303점
3	이혜인(인력관리학과)	6,017점
4	이지성(인력관리학과)	6,010점
5	박미서(노사관계학과)	5,909점
6	조진희(노동복지정책학과)	5,577점
7	이두리(인력관리학과)	5,367점
8	유동현(노사관계학과)	5,213점
9	정한영(노동법학과)	5,103점
10	서재웅(노사관계학과)	5,003점

기수장	학과장
노사관계학과 황복연 원우	노동법학과 정한영 원우 노사관계학과 윤준호 원우 인력관리학과 김준홍 원우 노동복지정책학과 조진희 원우 노동경제학과 김경중 원우

신입 원우분들의 추천으로 위와 같이 기수장, 학과장을 선출하였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내가 바로 주인공 

소식지 표지 사진 공모안내



내 용

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모임사진 등 베스트 컷 공모
(간단한 사진 설명/배경 필수 기재)

신청대상

노대원 원우 누구나
(재학생, 졸업생, 휴학생 모두)

신청방법

tauruscto@naver.com
kakao Talk ID _tauruscto

선정 시 혜택

- 1 노대원 소식지 표지 장식의 영광
- 2 30대 학생회의 마음이 담긴 서프라이즈 선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제 30대 학생회가 진행하는

미니학회 안내

주 제

- 마이클 센델 [공정하다는 착각] & 공정에 대한 토론

일시/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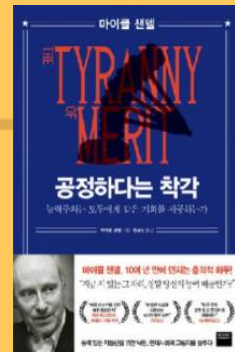
- 2022년 5월 일정검토 중
※ 추후 공지예정

진 행

- 온/오프라인 병행
※ 추후 공지예정

내 용

- 원장님 인사말씀
- 주요 내용 요약 챕터별 발제/토론
- MZ세대 사무직 노조가 바라는 사항
- 자유토론



원우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학생들을 환영하면서 신입생 원우들에게 드리는 글

입학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사회적 경험을 쌓고 직장병행으로 야간으로 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동대학원 입학이 학부 입학을 했을 때 보다 개인적으로 더욱 기뻐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상황이었고 미안한 마음이 유난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원하셨지만 어머니가 평소 들어 두신 교육보험을 보태어 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과 기숙사에 떨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학부 성적이 꽤 좋아서 충분히 좋은 대학원에 갈 수 있었으나 일찌감치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었습니다. 공대 학사 졸업생들은 석·박사 출신이 대다수인 연구소에는 보통 들어가기 힘들고 바닷가 인근 공장이 많은 지방 공장에 주로 배치되는 편입니다. 저도 2004년 첫 직장으로 부산 을숙도 근처 녹산공단 소재 삼성전기 부산공장에서 일을 시작 했었고 이후 현대·기아차 그룹공채로 입사하여 서해 석천항 인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10 여년간 일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 사정이 있어서인지 노동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제 스스로 번 돈으로, 공부하고 싶은 노동법을 심화 있게 공부한다는 점에 유난히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입학의 기쁨이 코로나로 인해 학교활동이 주춤해지면서 일명 라포가 형성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후배 기수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3교시를 해 본적이 없고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계시는 직장인들끼리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들을 서로 나눈다면 즐거운 일이고 우물 안 개구리의 시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너무나 좋은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원우님들에게는 노동대학원의 입학이 또 어떤 의미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의미가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술 한잔 기울이며 많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서두에 학부 얘기를 꺼낸 것은 노대원 입학의 기쁨이 큰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한 학교생활을 스스로 즐기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원우님들의 노대원에서의 학교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학생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이기는 Winning mentality를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대학원에 들어오신 만큼 보다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하시면서 충분히 즐기시는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때와 달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님들은 대부분 후하게 성적을 주시니 성적에 얽매이지 말고 즐기시는 공부,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0대 총학생회장 김태오 배상



학생회 주요 활동

제 30대 학생회 출범식



✓ 2021년 한해 동안 너무나 수고해 주신 제29대 학생회장 임보라 원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함



박지순 원장님은 학위수여식을 이날 다녀오신 후 학생회 원우들에게 노대원의 자부심과
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심. 학생회가 원우들의 학교생활에 윤희유 같은 역할을 해 주길 당부함



학생회 주요 활동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제 30대 학생회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노사관계학과

노동경제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인력관리학과

기획지원팀 (기획&학술협력)

위원	신동현	노동법학 53
위원	한용현	노동법학 52
위원	김윤수	노동법학 52
위원	서동호	노동복지 51
위원	정혜원	인력관리 50

부회장 김나영(노동법학 51)

...기획지원팀장 겸

복지협력팀

위원	김지이	인력관리 53
위원	김단비	노동복지 50
자문	문대성	인력관리 50
팀장	정민호	인력관리 51

명예자문
(전팀지원)

윤선재

노사관계 50

명예자문
(학술지원)

임현준

노사관계 50

대외협력팀

위원	김경락	노사관계 54
위원	주세진	인력관리 52
위원	이원희	노사관계 52
팀장	김대우	노동복지 52

부회장 송영우 (인력관리 51)

고문

전소영

노동복지52

고문

강원석

노동경제52

회장 김태오 (노동법학 51)

감사

조정호

노사관계53

감사

김세윤

노동복지51

※명예자문 임현준(노사관계 50), 윤선재(노사관계50), 문대성 (인력관리 50)

고려대학교



GLORY OF 노대원 편집진



이원희

노사관계학과 52기 / 편집장 - 대외협력팀

기고문, 학교 일정 등 자료 종합 편집



정혜원

인력관리학과 50기 / TF장 - 기획지원팀

내용 구성, 디자인 총괄 편집



김태오

노동법학과 51기 / 학생회장

인터뷰, 이슈 판례 등 담당 가이드



김윤정

인력관리학과 52기 / 디자이너 겸 에디터

3월호 소식지 디자인 개편 (레이아웃, 템플릿 제작)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소식지 2022.03. Vol 02

GLORY of 노대원